

지역 소식통

정읍형 푸드플랜 수립 제2차 중간보고회

정읍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해서는 8월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정읍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이완욱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시의회 의원, 관계기관, 농협, 로컬푸드 관계자, 생산자, 유통업체, 푸드플랜 TF 위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가에 안정적 판로확보와 소득을 제공하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바른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 관리 시스템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국 시·도대항 축구 최강전 13일 부안 개최

2021년 전국 시·도대항 축구 최강전 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부안군 스포츠차크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17개 시도협회 34개 대표팀과 전국 최강부 12개 팀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돌팻날 4강전부터는 MBC 스포츠+ 채널과 유튜브로 중계방송을 한다.

한편 보조경기장에서는 전국 어르신 페스티벌 축구대회가 개최되는데, 65세 이상의 경험 많은 축구선수들의 노련함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주최자인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안전한 대회 진행을 위해 사전에 백신접종 완료자와 PCR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선수들에 한해 참가신청을 받는 다. /부안=김석진 기자

'식초 품어 부가가치 높인다'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 '복분자·식초산업특구' 변경안 의결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가 발효식품의 끝판왕인 식초산업을 추가해 대한민국 6차 산업화 선도에 나선다.

8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계획'을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창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재배지(전국 35%)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으로 고창은 기존 복분자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식초산업을 추가해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사업은 기존 복분자 진흥사업(선운산 복분자 생산 벨리 조성사업 등)에 식초산업 육성기반 구축 4대 사업(발효식초 공유키움 플랫폼 구축, 식초산업화 기반조성, 복분자를 이용한 K-발사믹식초 생산, 고창식초의 과학화와 마케팅 지원)이 추가됐다.

특구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8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42명으로 분석됐다.

특구 사업을 위해 복분자·식초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

이 신규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복분자 재배 농지위탁경영을 위한 농자법, 도로교통법, 육외광고물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출발점에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지정이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이끄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을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식초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 농촌영화를 품다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 7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 폐막

장·단편 영화 공모작 상영... 관객 호응도 높아

'고창, 농촌영화를 품다'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가 지난 7일 성대한 막을 내렸다.

국내 유일,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의 농생명 특화 영화제인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는 지난 5일부터 3일간 열렸다. 코로나19 등 대외적 여건에서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한 가을밤의 힐링영화제의 모습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5일 첫날 개막식과 더불어 진행된 그린마켓 입장식에서는 영화계 초청 게스트들과 농촌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내빈들이 나란히 그린마켓 위를 걸으며, 농촌과 영화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더욱 부각시켰다.

그간 마음 놓고 극장 외출을 하지 못했던 관객들은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창농촌영화제만의 대표 프로그램인 드라이브 시네마는 관객들의 큰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 아틀란 전 좌석 매진이라는 기록을 이뤄냈다.

마지막날 폐막식에는 영화제 기간 상영된 6작품의 한국장편경쟁작의 심사결과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금과 함께 전달된 트로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모형을 형상화 했다.

고인돌을 받치고 있는 느티나무는 고창 지역의 각 마을에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느티나무에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농생명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고창농촌영화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를 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영화제 기간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과 고창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진기영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농협고창군지부장)은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기록을 이뤄냈다.

마지막날 폐막식에는 영화제 기간 상영된 6작품의 한국장편경쟁작의 심사결과와 함께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금과 함께 전달된 트로피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창 고인돌 모형을 형상화 했다.

고인돌을 받치고 있는 느티나무는 고창 지역의 각 마을에 해마다 정월 대보름이면 느티나무에 한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풍습이 있다. 농생명문화의 가치를 알리는 고창농촌영화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를 더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영화제 기간 애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과 고창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진기영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원장(농협고창군지부장)은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당정 예산정책협의회' 지역발전 협력방안 논의

정읍시·민주 정읍고창지역위원회, 국가 예산 확보 방안·시정 주요 현안 사업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유진섭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을 비롯해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시·의원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효율적인 2022년도 국가 예산 확보 방안과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도·시·의원이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예산 건의 사업 11건(▲정읍시 활용 디지털테마공원 조성 ▲서남권추모공원 2단계 사업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



정읍시와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는 지난 7일 정읍시청 대회의실에서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고부천 계보배수갑문 철거 사업 ▲내장산 내장호어영장 조성 등)의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과소 미반

영된 지역 예산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율 85% 달성

전북 고창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율이 지난 4일 오전 0시 기준 85%를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1차접종은 4만18466명이 접종해 전 인구(5만14098명) 대비 89.6%가 접종했다. 이는 4일 기준 전국 평균 1차접종률 80.6%과 전북 평균 81.9%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2차 접종은 4만6201명으로 85.4%가 접종을 완료했다. 접종완료자 역시 전

국 76.1%, 전북 77.4%보다 상당히 높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을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

고창군의 빠르고 높은 접종률은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4월 15~10월31일 운영)'의 신속한 설치와 안정적인 운영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별, 대상자별 순차적 접종을 시행했다. 이 과정에서 예약부터 이송, 3일간의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을 위한 지역 공

동체 전체의 노력과 지원으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접종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또 전 보건진료소는 물론 읍·면사무소에서 콜센터 권한을 부여받아 빠른 예약지원과 올바른 정보전달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집중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다.

미등록 외국인도 백신 접종 역시, 원스톱으로 등록부터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1차 92.6%(3427명), 2차 83.3%(3088명)로 미접종률은 6%에 불과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제2차 협의회 개최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위원장 김영배)는 8일 부안군청 회의실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2년 구성된 지원협의회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통한 부안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제안과 홍보활동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현재까지 새만금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들의 처리결과에 대한 부안군 새만금멤버리와 관계자의 설명과 함께 참석 위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배 위원장은 "국토 균형개발의 한 축으로 새만금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가는 상황에서 지원협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원협의회에서 발굴된 사업이 부안 100년 미래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염원과 군의 역량을 모아 역점사업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고 지원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검토해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번호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